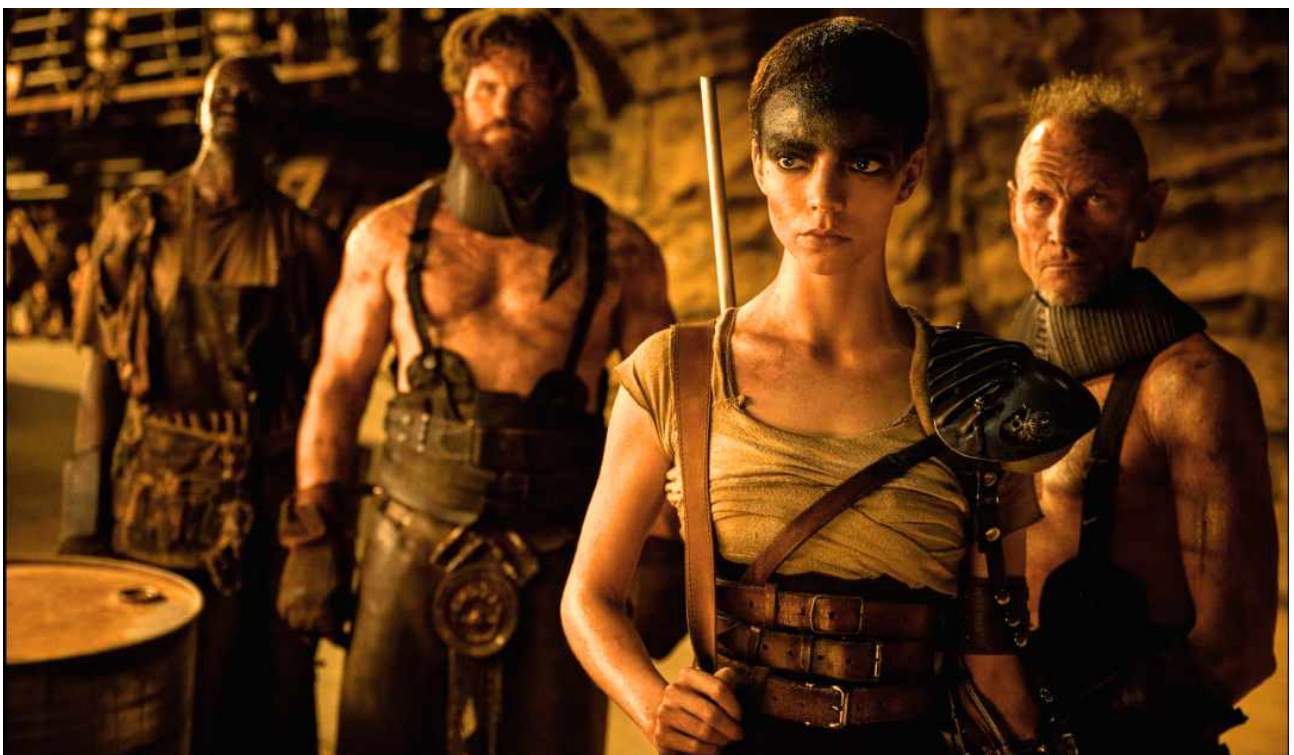


Christian Research(026) ‘퓨리오사’, ‘매드 맥스’, 그리고 현대의 종말론적 신화 -
Cole Burgett

출처: <https://www.equip.org/articles/furiosa-mad-max-and-the-modern-apocalyptic-myth/>

‘퓨리오사’, ‘매드 맥스’, 그리고 현대의 종말론적 신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

감독: 조지 밀러 (George Miller)

각본: 조지 밀러와 닉 라소리스 (Nico Lathouris)

제작: 더그 미첼 (Doug Mitchell) 과 조지 밀러

출연: 안야 테일러조이 (Anya Taylor-Joy), 크리스 험스워스 (Chris Hemsworth), 톰 버크 (Tom Burke), 알릴라 브라운 (Ayla Browne)

장편영화 (R등급) (워너 브라더스 픽처스, 2024)

[편집자 주: 이 리뷰에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는 소총을 보관하던 낡은 총기 보관함이 있었다. 아버지가 더 안전한

보관함으로 바꾸면서 총은 모두 꺼냈고 그 보관함은 위층에 있는 내 침실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온갖 기묘한 물건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아마 열 살쯤 되었을 때 그 보관함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VHS 테이프 하나가 선명하게 기억난다. 테이프 케이스 표지에는 검은 가죽옷을 입고 총열을 잘라 낸 산탄총을 든 멜 깁슨(Mel Gibson)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위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영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매드 맥스**.

그 영화를 보는 것은 열병에 걸려 꾸는 꿈과도 같았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기괴한 종말론적 미래 세계 가운데 하나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1979년에 개봉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붕괴 직전에 놓인 세계를 다룬다. 맥스 로카탄스키(멜 깁슨)는 마지막까지 남은 정직한 경찰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혼돈에 빠진 호주에서 정의를 지키는 보루이다. 영화 전체는 저예산 영화 제작 방식과 쉴 새 없는 액션, 그리고 실제 인물이라기보다 어떤 관념의 윤곽에 더 가까운 주인공이 어우러진 기묘하고 환각적인 환상처럼 펼쳐지는데, 그는 복수의 화신, 곧 응징이라는 관념이 완벽한 모양과 형태를 얻은 존재가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맥스의 그 최초 모습은 멋지다. 무릎뼈가 날아가고 팔이 부러졌는데도 몸을 끌어 일으킨 뒤, 휴 키스번(Hugh Keays-Byrne)이 연기한 아연실색한 토크터를 뒤쫓아 그 황량한 고속도로를 나아가는 장면은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영화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 뛰는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처음 개봉했을 때 이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뉴욕 타임스에 글을 쓴 톰 버클리(Tom Buckley)는 이 영화를 “추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하면서, 이 영화의 표적 관객층은 “영화를 가장 비판적으로 보지 않는 관객들”이라고 주장했다. (1) 그럼에도 이 영화는 50만 달러도 되지 않는 제작비로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 일부 제작진은 맥주 몇 상자로 보수를 받기까지 했다 – 흥행 수익 대비 제작비의 비율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영화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2)

영화의 성공으로 속편 제작이 확정되었고, 매드 맥스 2는 1981년에 개봉했다. 미국에서는 로드 워리어라는 (더 나은) 제목으로 개봉했으며, 이 영화는 오늘날 익숙한 이 시리즈의 도상 체계를 확립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황량한 풍경, 기억에 남을 만큼 기괴한 인물들, 이야기를 일종의 종말론적 동화처럼 구성하는 내레이터, 성능을 대폭 개조한 머슬카를 모는 검은 가죽옷 차림의 마음씨 착한 미치광이, 이 모든 요소는(대부분 매드 맥스에도 있었지만 저예산 때문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로드 워리어를 통해 대중의 의식 속에 확고히 각인되었다.

이 속편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액션 영화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았으며, 전설적인 영화 평론가 로저 이버트(Roger Ebert)는 이 영화를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가장 거침없이 공격적인 영화 중 하나”이자 “다른 어떤 영화와도 같지 않은 영화”라고 불렀다. (3) 빈센트 캔비(Vincent Canby)는 뉴욕 타임스에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쓰면서, 이 영화는 “가학·피학적 만화책

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호화로운 영화적 환상”이라고 했다. (4) 순수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영화 작품으로서, 이 영화는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이다. 조지 루카스(George Lucas)가 스타워즈(1977)의 각본을 쓰면서 영감의 원천으로 신화와 과거를 바라보았다면, 조지 밀러는 로드 워리어를 만들면서 “세상이 1980년경에 종말을 맞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묻는 미래에 대한 신화적 비전을 창조했다.

세 번째 영화(그리고 이후 30년 동안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될 영화)는 1985년에 개봉했다. 매드 맥스: 비욘드 썬더돔은 맥스 역을 맡은 멜 깁슨의 고별작으로, 사회를 재건하기로 결심한, 화려함만큼이나 무자비한 악당 앤티 엔티티 역의 티나 터너(Tina Turner)와 그를 맞붙게 한다. 이 영화도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독보적인 액션 장면으로 찬사를 받았으며, 이버트는 로드 워리어보다 이 영화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맥스와 앤절로 로시토(Angelo Rossitto)와 폴 라슨(Paul Larsson)이 연기한 마스터 블라스터의 대결을 “영화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액션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불렀다. 그는 매드 맥스: 비욘드 썬더돔이 “가능성이라는 목줄을 힘껏 잡아당기는 영화이자, 놀라운 비전으로 가득한 영화이다”라고 결론지었다. (5)

이 시리즈의 네 번째 영화는 거의 30년 동안 개발 지옥에 빠져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밀러는 자신이 원하는 영화에 대한 구상을 계속 확대했는데, 그 구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격전”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6) 그러나 수년간의 기획에 깁슨의 널리 알려진 법적 문제와 나이가 들어가는 문제가 겹치면서, 그는 배우 선정에 관한 결정을 재고하게 되었다. 2010년,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에서 베인 역으로 출연하기 2년 전, 영국 배우 톰 하디(Tom Hardy)가 맥스 역을 이어받겠다고 발표되었다. (7) 하디는 새로운 인물인 임페라토르 퓨리오사 역에 캐스팅된 샤를리즈 테론(Charlize Theron)과 함께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마침내 시작된 고된 2012년 촬영을 둘러싼 어려움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촬영장에서 벌어진 하디와 테론의 갈등에 관해서도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8)

제작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는 마침내 2015년에 개봉하여 평단의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그저 그런 수준의 흥행 수입으로 영화의 제작비는 회수했지만, 마케팅 비용과 시상식 홍보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작사는 약 2,0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9) 그런데도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 6개 부문을 수상했고 수많은 평론가의 연말 최고의 영화 목록에 올랐으며, 엠파이어는 2020년에 이 영화를 21세기 최고의 영화로 선정했다. (10)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같은 잡지에 평론을 쓴 이언 네이션(Ian Nathan)은 “맥스의 복귀는 완전히 미친 상상력, 입이 떡 벌어지는 액션, 괴짜 유머, 그리고 허리케인에 맞서 펼치는 연기가 이룬 승리이다”라고 썼다. (11)

워너 브라더스를 상대로 제기된, 상당히 세간의 주목을 받은 소송과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후속 장편영화 작업은 지연되었다. 그러나 밀러는 2020년 코로나19 봉쇄 기간에도 조용히 자신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젊은 퓨리오사 역에 안야 테일러조이를 캐스팅했다.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프리퀄 촬영은 2022년에 시작되었으며,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2024)가 이 광기 어린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막 개봉했다.

가장 어두운 천사. 신작은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의 사건이 일어나기 약 1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린다. 그러나 이 두 최신작을 깔끔한 연속성 안에 끼워 맞추려는 어떤 시도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 처음 세 편은 하나의 3부작을 이루지만,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개봉하면서 이 시리즈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소프트 리부트”를 거쳤다. 예를 들어, 영화는 맥스가 그의 상징적인 “블랙 온 블랙” 인터셉터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이 차는 로드 워리어에서 파괴되었고 매드 맥스: 비욘드 썬더돔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2015년 영화에서 다시 파괴되었다. 밀러 자신도 이 영화들은 애초부터 연대기를 염두에 두고 구상된 것이 아니며 어떤 엄격한 연속성도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각 영화를 하나의 중심적인 원형적 인물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단편적이고 민속적인 “에피소드”에 비유했다: “황무지를 떠돌며, 근본적으로 의미를 찾는 방랑자.”(12)

그렇기는 하지만,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에 제시된 맥스의 세계를 확장한다. 이 작품에서 러치 험(Lachy Hulme)이 연기한 임모탄 조와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연기한 식인종 같은 인물들이 돌아오는 한편, 크리스 험스워스가 연기한 악당 데멘투스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황무지의 정치 구도를 더욱 구체화한다. 맥스는 제이콥 토무리(Jacob Tomuri)가 연기하지만 영화에서 잠깐 모습만 비치는 반면, 퓨리오사가 중심에 서고 이야기는 그녀의 과거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황무지에 마지막으로 남은 농경지와 담수의 보루 가운데 하나인 녹색의 땅 출신인 퓨리오사는 전사 같은 생존자들로 이루어진 모계 부족인 부발리니의 후손이다. 영화 초반, 녹색의 땅을 우연히 발견한 바이커 군단의 약탈자들이 그녀를 붙잡아 자신들의 지도자인 데멘투스라는 군벌 겸 메시아 같은 인물에게 데려간다. 찰리 프레이저(Charlee Fraser)가 연기한 그녀의 어머니 메리 자바사는 약탈자들을 추격해 죽이지만, 구출 시도가 어긋나는 바람에 데멘투스는 퓨리오사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처형한 뒤 소녀를 자신의 포로로 삼는다.

퓨리오사는 데멘투스를 녹색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거부하고, 얼마 후 바이커 군단은 담수 대수층 위에 자리 잡은 세 개의 바위탑으로 이루어진 시타델을 우연히 발견한다. 데멘투스는 시타델을 차지하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시타델의 폭군 임모탄 조 –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의 궁극적인 악당 – 와 승산 없는 전쟁을 시작한다. 퓨리오사를 넘기는 조건으로 조와 거래를 맺은 데멘투스는 시타델의 운영에 필수적인 인근 정유 시설인 가스타운을 다스릴 권한을 얻는다. 그렇게 퓨리오사의 여정이 시작된다. 어린 포로에서 조의 “워보이” 대열에 속한 뛰어난 정비공으로, 그리고 마침

내 자신의 연인이자 조의 “워 리그” -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에 등장했던 상징적인 트럭 - 의 운전사인 근위대장 잭 (톰 버크)의 가르침 아래 비길 데 없는 로드 워리어로 성장하는 여정이다.

넓게 말하면, 환경주의라는 주제는 처음부터 이 시리즈 전반에 스며들어 있었으며,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는 입체적으로 그려진 여성 인물들이 수많은 액션 장면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하도록 했다는 점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다. 이 두 요소는 모두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다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영화는 환경주의나 페미니즘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다루는 작품이 아니다; 순수함의 상실과 복수의 공허함을 철저하게 탐구하는 작품이다.

로드 워리어가 맥스의 이야기를 일종의 어두운 동화로 구성한 이래, 이 영화들의 이야기는 정신이 나간 채 악물에 취해 혼미한 상태에서 들려주는 민담처럼 전개되어 왔다. 다시 말해, 밀러는 이야기 속에서 작용하는 원형적 특성과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빈약한 줄거리와 의도적으로 기괴한 도상으로 이 이야기들을 그려 낸다. 한 가지 예로, 최신 영화는 퓨리오사가 문자 그대로 녹색의 땅에서 창세기 1-3장의 에덴 이야기를 조금도 은근하지 않게 연상시키는 열매를 향해 손을 뻗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금지된 지식에는 관심이 덜하지만, 혼돈이 들어올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에는 큰 관심을 보인다.

퓨리오사는 일종의 에덴에서 끌려 나와 황무지에 내던져지고, 그곳에서 데멘투스와 임모탄 조 같은 기괴하고 흉측한 폭군들이 벌이는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러 면에서 이 시리즈의 특징으로 알려진 변태적이고 가학·피학적인 이미지는 세상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정상적인 질서가 아니라 미쳐 버린 세계를 나타낸다. 밀러가 그리는 괴물 같은 모습은 삶의 소박하고 선한 것들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이 시리즈 전반에서 선향은 복잡하지 않고 평범한 것으로 자주 묘사된다 - 세상의 혼돈이 닥아가기 전에 맥스와 퓨리오사에게 있었던 가족들이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잃는 것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중심 주제로, 황무지의 잔혹한 세계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부각한다. 이 주제는 퓨리오사가 마침내 데멘투스에게 복수할 때 가슴 아프게 드러난다. “가장 어두운 천사”(13)가 되어 황무지를 가로질러 그를 추적한 끝에, 그녀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한번 잃으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과거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향해 아마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 아니, 더 정확히는 존재해야 하는 - 갈망을 상징한다. 퓨리오사는 데멘투스를 아무리 때려도 주먹질로는 자신의 고통을 조금도 무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복수는 실제로 부서진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출 수 없다. 이러한 깨달음의 비극은 밀러가 매혹된 듯하며 시리즈가 시작될 때부터 영화들에 스며들게 한 더 광범위한 실존적 절망을 반영한다. 이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한때 알았던 세계가 사라졌고 이전 삶의 흔적은 아득한 기억으로만 남았다는

냉혹한 현실과 거듭 마주한다.

그러나 이 주제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진정으로 강력한 대조점을 만난다. 그 영화에서 퓨리오사는 마침내 어린 시절의 녹색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이 황무지의 황폐함에 삼켜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과 바라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장면은 촬영감독 존 실(John Seale)이 아름답게 촬영한 장면이자 영화의 감정적 절정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맥스는 도망치는 대신 힘을 합쳐 시타델을 되찾고 “어떤 형태로든 구원을 찾자”고 제안함으로써 희망의 생명줄을 건넨다. (14) 이미 강력했던 이 장면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사건들로 인해 더욱 의미가 깊어지며, 이 두 영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볼 때 가장 훌륭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의 종말론적 신화. 밀러의 매드 맥스 5부작은 본질적으로 고전 신화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밀러 자신이 지적하듯이, 각각의 이야기는 타락한 세계의 혼돈과 파괴 속에서 의미와 구원, 더 나은 내일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투쟁을 반영하며, 이는 이 영화들을 기독교 문화 변증가에게 금광과도 같은 작품으로 만든다.

신화적 이야기에서 원형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이어지는 기초 요소이다. 미국 서부극과 일본의 찬바라(사무라이 영화)가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비슷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매드 맥스 시리즈는 이러한 원형으로 가득하다: 영웅의 여정(맥스와 퓨리오사 모두), 방랑자, 폭군, 잃어버린 낙원을 찾는 여정이다. 영웅이자 방랑자인 맥스는 자신을 괴롭히는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에 내몰려 의미와 정의를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물이다. 퓨리오사는 자신만의 “여전사” 원형으로, 회복력과 변화를 상징하며 신화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은 모두 메마르고 무법천지인 광활한 땅, 곧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영역을 현대적으로 옮겨 놓은 곳이자 영웅들이 시험받고 선과 악의 세력이 충돌하는 곳인 황무지를 배경으로 한다. 비슷한 개념은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성경 저자들은 황량하고 물 없는 곳을 귀신들의 영역으로 보는 고대 근동의 이미지를 활용한다 – 이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43에서 암시하시는 듯한 고대 히브리식 표현이다. 성경에서 귀신과 마주치는 일은 황량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며(누가복음 8:29; 11:24 - 26),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1 - 11에서 광야에서 사탄을 만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세 차례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 신명기는 가나안 점령의 광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율법”이다. 요점은 메마른 곳이 영웅들이 시험받고 선과 악의 세력이 충돌하는 장소라는 것이며, 조지 밀러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문명의 취약성과 사람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희망을 탐구한다 – 그리고 희망은 이 프리퀼에서 제시되어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결실을 맺는 또 하나의 주요 주제이다.

매드 맥스 영화들의 구조도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성경은 에덴에서 출발해 타락한 세계의 시련과 고난을 지나 구원의 소망과 궁극적인 회복에 이르는 여정을 보여 준다. 이와 비슷한 패턴을 따라, 매드 맥스 영화들은 혼돈이 들어와 기본적인 근본적이며 평범한 선을 무너뜨리는 세계를 묘사한다. 세상 대부분이 절망에 내맡겨지는 반면, 더 나은 무언가를 소망하도록 허락받은 귀한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문화 변증가가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하는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말로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의 결말에서 “최초의 역사가”가 제시한 다음 수수께끼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더 나은 자신을 찾아 이 황무지를 떠도는 우리는?”(15)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답이 있다. –콜 버젯 (Cole Burgett)

콜 버젯은 달라스 신학교와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조직신학과 성경 강해를 가르치며 신학과 대중문화에 관해 폭넓게 글을 쓴다.

NOTES

1. Tom Buckley, “Mad Max (1979),” New York Times, June 14, 1980, <https://web.archive.org/web/20110521024820/https://movies.nytimes.com/movie/review?res=EE05E7DF173BBB2CA7494CC6B6799C836896>.
2. Joanna Robinson, “8 Reasons Why Mad Max is the Most Improbable Franchise of All Time,” Vanity Fair, May 15, 2015, <https://www.vanityfair.com/hollywood/2015/05/mad-max-history>.
3. Roger Ebert, “Mad Max 2: The Road Warrior,” Chicago Sun-Times, January 1, 1981, <https://www.rogerebert.com/reviews/mad-max-2-the-road-warrior-1981>.
4. Vincent Canby, “Post-Nuclear ‘Road Warrior,’” New York Times, April 28, 1982, <https://www.nytimes.com/1982/04/28/movies/post-nuclear-road-warrior.html>.
5. See Roger Ebert, “Mad Max Beyond Thunderdome,” Chicago Sun-Times, July 10, 1985, <https://web.archive.org/web/20130326174707/https://rogerebert.suntimes.com/apps/pbcs.dll/article?AID=%2F19850710%2FREVIEWS%2F507100301%2F1023>.
6. See Adrian Martin’s remarks regarding Miller’s ideas for the series in Adrian Martin, *The Mad Max Movies* (Australian Screen Classics) (Redfern, New South Wales: Currency Press, 2003), 7ff.

7. Adam Rosenberg, "EXCLUSIVE: 'Mad Max' Speaks! 'Bronson' Star Tom Hardy on His Coming Game-Changer," MTV, December 1, 2009, <https://www.mtv.com/news/5w497n/exclusive-mad-max-speaks-bronson-star-tom-hardy-on-his-coming-game-changer>.
8. Julie Miller, "Tom Hardy Publicly Apologizes to *Mad Max* Director George Miller," Vanity Fair, May 14, 2015, <https://www.vanityfair.com/hollywood/2015/05/tom-hardy-mad-max-apology>.
9. Pamela McClintock, "And the Oscar for Profitability Goes to ... 'The Martian'," *The Hollywood Reporter* (Mar. 3, 2016), <https://web.archive.org/web/20161012024433/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oscar-profitability-goes-martian-872507>.
10. Bryon Bishop, "Mad Max: Fury Road Wins Most Awards of the Night with Six Oscars," Verge, February 29, 2016, <https://www.theverge.com/2016/2/29/11131218/mad-max-fury-road-most-awards-academy-awards-2016>; "The 100 Greatest Movies of the 21st Century: The Critics' List," Empire, January 24, 2020, <https://www.empireonline.com/movies/features/the-100-greatest-movies-of-the-21st-century-the-critics-list/>.
11. Ian Nathan, "Mad Max: Fury Road Review," Empire, November 5, 2015, <https://www.empireonline.com/movies/reviews/mad-max-fury-road-review/>.
12. George Miller, quoted in Brendon Connelly, "George Miller Interview: Mad Max and the Making of Fury Road," Den of Geek, October 13, 2015, <https://www.denofgeek.com/movies/george-miller-interview-mad-max-and-the-making-of-fury-road/>.
13. *Furiosa: A Mad Max Saga* [Film], directed by George Miller, written by George Miller and Nico Lathouris (Burbank, CA: Warner Bros. Pictures, 2024).
14. *Mad Max: Fury Road* [Film], directed by George Miller, written by George Miller, Brendan McCarthy, and Nico Lathouris (Burbank, CA: Warner Bros. Pictures, 2015).
15. *Mad Max: Fury Road* [Film], directed by George Miller.